

협회-한국노총 경기본부, 산재예방에 공동협력



경기지역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의장 박남식)가 11월 9일 '경기지역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신진규 협회장과 박남식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진규 협회장은 "협회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노총의 현장 접근성을 잘 활용하여 경기지역의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박남식 의장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뜻을 같이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협회가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안전으로 사랑으로 산업재해를 줄입시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안전으로 사랑으로 산업재해를 줄입시다' 캠페인이 지난 11월 18일 서울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지하광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관계자들과 협회 임직원들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팸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산재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안심일터 만들기'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를 담기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됐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지회, 안전보건관계자들과 우수 현장 견학



충북지회(사무국장 권혁무)가 관내 안전보건관계자 50여명과 함께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포스코 평양제철소를 견학했다. 이번 자리는 관내 안전보건관계자들에게 선진 안전시스템 및 기술들을 직접 접해보도록 해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충북지회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을 견학한 후에 각 사업장의 도입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라며 "이번 견학이 관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협회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개최



'2011 KISA 위험성평가 발표대회'가 11월 1일 협회 중앙회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위험성평가발표대회는 산업안전인들의 공론의 장이자 향후 평가 기법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올해 역시 내·외부 인사로 관람석이 가득 찼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가 국내 처음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을 개발, 사업장에 적용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발표내용 그 자체에 현 우리나라 위험성평가의 수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산업현장에 가장 효율적인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를 만들어내갈 수 있도록 향후 더 발전된 발표대회를 개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북부지회, 무재해 결의대회 개최



지난 11월 10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지회장 김성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은 구미지역 안전보건관계자 120여명과 함께 상주에 소재한 낙산에서 안전지원제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구미지역 관내 사업장의 무재해를 결의하는 한편,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유한봉 구미지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북북부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지회 사랑의 김치나누기 봉사활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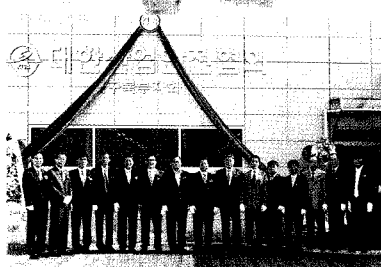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지회장 채수현)가 지난 11월 14일 관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인천지회는 지난 11일 청천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사랑의 김치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그동안 모아온 성금 50만원을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인천지회의 한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김치를 직접 만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활동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규 협회장, 서울과기대서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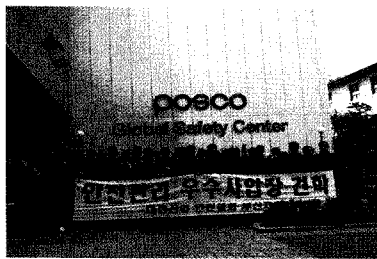
협회 신진규 회장이 지난 11월 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학생들에게 산업안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제상과 산업안전 실무 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진규 회장은 특별연사로 초청됐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 지식이 미흡한 사람, 열정이 부족한 사람은 결코 미래 산업현장의 주역이 될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를 이끌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정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북부지회 이전 개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북부지회(지회장 변재영)는 최근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12번지 기계부품연구원(508 ~ 510호)으로 확장·이전하고, 지난 11월 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직원들과 이수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외부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수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산재정책이 자율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구지역의 산재감소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회, 현장견학과 안전체험교육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지회장 김종원)가 지난 10월 28일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자 24명과 함께 포스코를 방문, 선진안전 시스템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자들은 포스코 현장을 견학하는 것 외에 글로벌 안전센터를 방문해 안전체험교육도 받았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리가 선진안전시스템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였음은 물론, 안전관리 활동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 견학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 관내 사업장의 재해가 크게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